



아주 사적인 편지



프로젝트 리즘



아주 사적인 편지

시작하는 말

팀 리좀(rhizome)은 2020년 ‘좀좀따리 리좀’ 프로젝트로 독립출판물 ‘성남’을 출간하고 현재까지 격주로 팟캐스트를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추세가 장기화함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은 청년 세대가 실감하는 고립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팀 리좀은 두 번째 독립출판물 <아주 사적인 편지>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공유하고, 묻고자 합니다.

편지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친구, 이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지인부터 과거나 미래의 자신, 반려동물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수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편지 속에서는 받는 이를 ‘너’라는 2인칭으로 부르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부쳐진 편지가 누구에게나 부쳐진 편지가 될 수 있도록요.

수신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열여덟 통의 편지를 읽으며 어떤 편지는 꼭 내가 쓴 것처럼 발신인의 심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어떤 편지는 꼭 누군가 내게 쓴 것처럼 한 줄 한 줄 읽게 되었습니다. 편지와 편지 사이의 장을 넘기게 될 모든 손이 이러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여덟 통의 편지를 엮었습니다. 나와 아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숨 쉬고 있다는 생각이 비대면 시대의 고립감과 무력감을 조금이나마 견어내 줄 수 있리라 믿으면서요.

목 차

익명의	첫 번째 편지	9
편지	두 번째 편지	15
	세 번째 편지	21
	네 번째 편지	25
	다섯 번째 편지	31
	여섯 번째 편지	37
	일곱 번째 편지	43
	여덟 번째 편지	49
	아홉 번째 편지	53
	열 번째 편지	59
	열한 번째 편지	65
	열두 번째 편지	71
	열세 번째 편지	79
	열네 번째 편지	85
	열다섯 번째 편지	91
	열여섯 번째 편지	97
	열일곱 번째 편지	105
	열여덟 번째 편지	111
리즘의 편지	당신에게 쓰는 편지-1	118
	당신에게 쓰는 편지-2	120
	당신에게 쓰는 편지-3	122
	당신에게 쓰는 편지-4	124

첫 번째 편지

안녕. 오늘은 너에게 편지를 두 통 쓰는 날이야. 한 통은 아마 네 이름을 편지지 맨 위에 무지개처럼 건 채 네게 닿을 테고, 이건 아마 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네게 가까스로 닿을 수 있겠지. 네가 그 속에서 네게 쓴 편지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 나는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숨겨두기로 한 사람의 마음보다 숨바꼭질을 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 아마 편지가 하나의 물체나 대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내 일부로 느껴져서 그런가 봐. 다른 편지들에 빼곡하게 채워졌을 글자들 사이에서 나는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고, 그러면서도 머리카락을 뺨쪽 내밀고 있어. 네가 아주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되니까.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발각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날, 한자리에 모인 여러 사람 중에서도 너는 조금 더 적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 너랑 나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니까 사실 엄밀한 물리학에 근거해 이야기하자면 제일 멀리 있었을 거야. 그랬는데도 같은 문을 차례로 열고 나와 네게 가볍게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건 아마 사소한 공통점들이 그 거리를 조금씩 지워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날 이 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당황하던 네게 부랴부랴 인사를 건네고 나는 타본 적 없는 광역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 그리고 다음번에 너를 만났을 때는 그날 저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사실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면서 능청스럽게 따라 걷지 않은 걸 후회했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네가 돌아가야 하는 곳보다 훨씬 멀리 있고, 그래서 네가 버스를 타는 곳까지 함께 걸은 후 그곳에서부터 출발해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랬다면 또 했던 거짓말을 어떻게 주워섬길 수 있을지 오래 고민해야 했겠지. 첫 단추를 거짓말로 꿰지 않은 탓에 나는 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오래도록 마음속에만 품어야 했지만, 그래도 그 덕에 두 차례 오래 고민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어.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다고 네게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길었거든.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바라보게 될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다 보면 뭘 낼지 미리 말하고 하는 가위바위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문 생각들을 하게 돼. 이러진 않을까, 이러면 또 이렇지 않을까.

너와 더 친해지고 싶어.

배운 지 얼마 안 된 외국어로는 더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모국어로 전하려니 앞뒤는 물론이고 사이사이에 아주 많은 말들이 끼어들다가 나중에는 전하려던 원래의 형태마저 완전히 사라진 문장이 되기도 했어. 머릿속으로 적었던 문장들을 언젠가 네 앞에서 말해줄 수 있게 될까? 그러면 나는 네가 내가 지나온 시간을 헤아려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웃음을 팡 터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함께 지나쳤기를 바라. 그러기 위해 나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기울이고, 사소한 노력을 꾸준히 반복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주 즐겁고 행복해질 거야.

아직 나는 네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그전에 꽃에 감동을 하는지 아

니면 어떤 감흥도 받지 못하는지도 모르지. 뜬금없이 무슨 꽃 이야기인가 싶겠다. 편지를 쓸 때마다 상기하는 문장이 있거든. 어떤 시인이 말하길 우리가 편지를 쓰는 건 꽃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과 같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대. 김행숙 시인이었는지 유진목 시인이었는지 모르겠다. 출처가 불분명할 정도로 흐려진 문장들이 으레 그렇듯이, 그 반대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꽃을 선물하게 된다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해.

아름답고 좋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웃게 되는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서로 닮았기 때문일까. 네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 문장을 몇 번씩 떠올렸어. 네 손에 쥐여 줄 편지에도 아마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장들을 가려내 적게 되겠지. 너를 만나러 가는 날에는 편지를 써두고도 꽃을 몇 송이 살까 오래 주저하기도 할 거야. 어쩌면 네게 말을 건네던 날처럼 언젠가는 충동적으로 몇 송이의 꽃을 쥐고 너를 만나러 갈지도 몰라. 그래도 웃어 줄래? 꽃잎에 흔적 없이 적혀 있을 문장들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나도 같이 웃을게.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 곧 만나자, 안녕.

두 번째 편지

네 덕분에 간만에 편지지도 고르고 손글씨도 써보게 되었어. 이 모든 과정이 낭만적인 이유는 모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는,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 때문인가 봐. 우리가 밥을 먹는 건 조금도 낭만적이지가 않잖아.

오늘 아까 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보았는데 나는 냉소적으로 반응했지만 사실 그 대화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 편지라는 주제는 너무나 아날로그적이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지. 편지 내용, 심지어는 편지를 주고받은 상대방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편지를 써본 경험, 받아 본 경험, 답장해본 경험 속에서 느꼈던 기분 좋은 설렘과 두근거림은 새록새록 기억났겠지.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한다고 느꼈어. 그래서 그 대화가 정말 좋았어.

편지를 버리니 마니 했으니 어쩐지 해명을 하게 되네. 변명이라고 할까. 편지를 쓰는 것이 내게 부담인 이유는 그게 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야. 그게 싫은 이유는 나를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기 때문이고. 그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뜻이지. 누가 나를 싫어해도 상관없다면 왜 그렇게 평가에 집착하겠어? ‘모두에게 사랑받는단다’라, 머리로만 보면 그게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내 감정은 뜻대로 잘되지 않아.

응, 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연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조금이

라도 미운 짓을 했다가는 금방 미움받고 말 거라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지. 그것은 아마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결점 하나로 미워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될 결점 하나를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싫어하던 사람의 좋은 면을 보게 될 때마다 나는 부끄러워져.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수록 그 좋은 면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해. 아들러가 말했던 어떤 진실 하나가 또렷해져. 나는 그 사람의 결점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 그 사람의 결점을 수단으로 삼은 ‘원인’이었던 거야. 이미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야.

내가 사람은 좋거나 나쁘기보다 그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이 부끄러워야 할까?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매번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수치스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많이, 더 강렬하게 부끄러워야 할 테지. 이렇게 치명적인 나의 결점들이 모여서 내가 편지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네. 편지야말로 관계 속에서 오갈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우리의 정신이니까. 편지를 쓰는 행위에는 얼마나 많은 용기와 힘이 담겨 있을까.

편지를 받는 것 또한 부담이라고 했었지. 그건 사색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가 두렵고, 좋은

말을 들어도 거짓말처럼 들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의심해. 중요하지 않으면 의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겠지. 상대방이 나한테 편지를 써 주었다는 그 낭만적인 사실 자체를…. 마음껏 고마워하고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생각만 하는 꼴이지. 등잔 밑이 어두워 소중한 것들을 잃는다는 건 바로 이런 뜻일까?

있잖아, 네가 선뜻 만나자고 해주는 바람에 너를 만날 수 있었어. 나는 먼저 다가가는 것을 잘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그게 정말 고마워. 너의 집에 놀러 가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함께하자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 그때 못한 말을 이렇게 편지로 전해.

편지를 써내라는 너의 용감한 장난이 이 편지로 돌아왔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또 걱정의 굴레에 빠져 자신을 잃기 전에 나는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면서 이만 줄일게. 편지를 쓸 수 있는 네가 내게 있다는 사실 자체, 우리의 감사한 인연과 꽤 오래 함께할 우정 같은 것들 말이야.

세 번째 편지

집 근처에 쌀 디저트 가게가 새로 생겨서 다녀왔는데 휘낭시에, 마들렌, 흑임자 케이크와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팔고 있어서 종류별로 사서 먹어봤어. 흑임자 케이크는 네가 좋아할 가벼운 시트여서 먹는 내내 네 생각이 났어. 저번에 우리 함께 먹었던 딸기 케이크도 가벼운 시트여서 네가 좋아했잖아. 바스크 치즈 케이크는 전에 직접 만들었을 때는 너무 짭맛이 강해서 먹기 힘들었는데 사 먹는 건 역시 조화롭게 달고 짭조름하더라. 또 네가 좋아하는 마들렌은 그저 그랬고, 내가 좋아하는 휘낭시에에는 맛이 좋더라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네가 좋아할 것 같아 다음에는 너와 함께 먹으려고 해. 다 먹고 나면 네가 저번에 보고 싶었던 전시를 보러 가자. 아직 날이 그렇게 덥지 않아 전시 후에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좋았던 작품, 즐거웠던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산책을 마치고 공원을 나오면 작년에 갔던 카페에 다시 가서 바뀐 점을 찾아보는 것도 즐겁겠다. 아마 커피와 브라우니를 먹었던 것 같은데 시즌마다 디저트류가 바뀌어서 계속 팔고 있을지 모르겠어. 다시 팔고 있다면 먹으면서 예전을 떠올려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걸 먹어서 다른 추억을 쌓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일 연락 할게. 곧 만나!

네 번째 편지

안녕.

우리는 항상 서로의 이름을 크게, 그리고 길게 부르며 웃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었다는 걸 편지를 쓰면서 알았어. 너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한 게 까마득한 옛날이라 두 글자를 적어 놓고 낮간지러워 하는 중이야. 사실 나는 친한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거나 성을 떼고 이름만 부르는 게 어딘지 오그라들고 민망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에게는 ‘안녕’이라는 말을 건넬 날이 없을 줄 알았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처음 만나던, 그리고 충분히 친해져 날마다 함께하기 전 정도만 ‘안녕’이라는 말을 수줍게 건넸던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우리 사이가 그때와 같아서 안녕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글쎄,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답은 알 수 없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반복했는데 언제부터인지 고민하는 게 머리 아프다는 이유로 생각을 멈췄어. 생각이 정리되면 너에게 다가가겠다고 마음먹어 놓고 말이야. 그사이에 나는 정리가 아직 안 되었는데 너에게 연락이 왔어. 고맙고 반갑고 기뻐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기분이야. 아무렇지 않게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답장을 하면서 왜 그럴 수 없는 거지-하는 의문이 가득 차더라.

그래서 네가 무슨 마음으로 연락을 했을까, 너도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동안 너는 어땠을까, 너도 나처럼 지금이 쿵닥거릴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와 짧은 문장 하나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궁

금해. 너는 답을 내렸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을 알면서도 어김없이 궁금해져. 좋게 생각하면 답이 없더라도 나와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일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얘기는 영영 나누지 못하겠구나 싶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답답해져. 그러게. 나는 너만큼 용감하지 못해서 먼저 다가와 준 네게 자꾸만 뒷걸음치고 있어.

그래도 괜찮다면, 우리 다시 웃자. 아냐 웃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마주 보자. 나는 아마 계속 불안해할 거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볼드모트의 이름을 꺼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꾸만 이게 옳은 걸까 생각하겠지. 하지만 관계에 옳은 게 어디 있겠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서로 이야기되어 불편한 것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도 어쩌면 그냥 내 기준 아닐까? 아니면 충분히 심각한 일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내가 회피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 끝없는 고민에 휩싸여 '나는 쓸데없이 생각이 너무 많아'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줬잖아. 그러면 안심이 되었는데. 너의 그 부드럽지만 단호한 확언이 절실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사를 건네고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네게 더 반응하도록 레이더를 곤두세울게. 돌고 돌아 언젠가는 오늘의 문제로 회귀하더라도 그때까지 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야. 내가 이런 불확실함과 정해진 결말을 무시하고 바보같이 구는 걸 끔찍이 싫어하는 걸 알잖아.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너의 말마따나 우리는 계속 친할 거고 계속 좋을 거야. 이런 시간이 반복되더라도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미워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낮간지럽다는 이

유로 몇 번 말하지 않았었는데, 사랑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네가 좋다.

‘우리는, 계속 친구할 것 같아.’

다섯 번째 편지

안녕?

날씨가 너무 덥다. 지하철에서 열사병을 얻었어. 신기하지? 약방방 칸에 탄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칸에 바람이 안 나오더라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는 거창하게 났는데 말이야. 너도 집에서 나갈 때 양산이든 우산이든 꼭 챙기고 물이나 손풍기 꼭 챙겨서 나가. 열사병 덕분에 여름은 아무래도 이제 신나고 화창한 계절이 아니라 이제는 쓰러지기 좋은 무서운 계절이 됐어.

그리고 나 이번 학기 F 받았어. 그것도 전공 2과목이나. 이미 알겠지만 말이야. 나는 이런 점수를, 이런 학점을 받은 적이 없었어. 전문대를 나오긴 했지만 과 수석도 해봤고, 편입 준비로 공부를 못했을 때도 C는 받았어도 F는 받아본 적 없었어. 남들이 보면 한심스러운 이 점수를 받고 나선 잠깐 울컥하고 자신을 한심스러워했지만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 그래도 기말고사는 보고 F 받은 거니까. 기말고사를 보고 성적을 보는 지금까지 잘도 살아있구나 싶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 나는 역시 노력을 해야 그만큼을 얻는 사람이라는 걸. 공부를 시작해서 노력했던 과목은 그래도 B, C를 받았거든.

올해 초에 집 앞에서 성추행을 당했던 걸 F를 받음으로써 한결 괜찮아질 줄은 몰랐어. F를 받고 나서야 가족한테도 F를 받았다고,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성추행을 당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책을 붙잡고 몇 날을 울었고, 지금도 집 앞을 다니기 힘들고,

집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경계하는 일상이 너무 지친다고 말할 수 있었어.

처음엔 스터디카페만 안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공부하고 나오는 길에 성추행을 당해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쉽지 않더라고. 책을 펼쳐보려고만 해도,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학교 어플을 눌러보려고만 해도 그 더러운 느낌이 자꾸 떠올라서 울기도 하고 잊으려고 잠만 자기도 했어. 과제는 기한 내에 끝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돼서 시작은 마감기한 한 달 반 전에 하려고 했는데 책을 펼쳐서 과제를 시작한 건 일주일 전이었어. 그래도 과제는 났다? 그리고 점수도 잘 받았어. 근데 그 와중에 나 회사도 다니잖아. 이제는 내가 좀 대단해 보이지 않아?

예전에는 눈을 뜨면 그냥 시작됐던 하루가 이젠 그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선택하는 하루가 됐어. 그만큼 무거운 하루를 살아가는 와중에도 나는 여전히 집 앞을 나설 때면 어깨가 굳어. 여전히 나는 ‘오늘도 살아 있네.’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어. 보통은 그저 사는 거지, 살아간다고 표현하지 않잖아.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가고, 병원에 다니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해줘서 고마워.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에 불쑥 끼어들게 해서 무턱대고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신경질 내는 것들을 돌봐준 건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 같아. 이 어이없는 가해자는 나한테 합의금 300만 원을 제안했어. 나는 병원비로 이미 100만 원은 쓴 것 같은데 말이야. 혹시 몰라서 말하는데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병원이 잘 맞고 병원 진료를

전부터도 받고 있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누군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말해줘.

나는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살아있어.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에도, 다른 사
람들의 글을 읽을 때에도, 이 책을 덮어 책꽂이에 꽂아둘 때에도 나는 살
아 있을 거야. 다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 수 있도록 너와 너의 고양이의
손을 열심히 빌릴게.

이제는 좀 나가보려고. 졸업 요건 채울 자격증도 따고, 취업할 때 필요한
자격증도 따려고 학원도 끊었어.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쉽진 않겠지
만 이대로 있긴 싫으니까. 이직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해야지.

양손에 든 F도 뒤집어 들면 ㅋ이 되잖아. 네가 매번 크게 웃어주는 반만이
라도 같이 웃으면서 걸어가 보려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부탁해.

너에게 항상 빛을 지고 있는 내가.

여섯 번째 편지

안녕.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몇 년 만이지? 내가 가늠하지 못할 만큼 까마득한 예전이라는 건 알겠어. 요즘 어때니? 최근 많은 일이 일어났고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 네가 그런 일들에 타격을 많이 안 받는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 년 반에서 이 년 정도, 안정적이었다면 안정적이었던 그 시간들이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 그야 여태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고 큰일 없이 지나갔고 너무 바빴고... 이 적응기가 어른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내색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몰랐던 거였다는 말을 듣고 한 대 맞은 것 같더라. 힘들어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니....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는데, 내가 끔찍이도 아끼는 네가 나만큼 너를 아끼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도 났어. 그리고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했던 일 이 년 간의 그 기간이 알게 모르게 네 자존감을 많이 훔쳐 갔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어. 이 모든 게 정말 화가 나는데 내가 이 사실을 지금에야 알았다는 게 가장 화가 나. 그리고 자꾸만 팬스레 너에게도 화가 나. 주위 사람은 정말 잘 챙기면서 정작 너는 그렇게 챙기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네 주위 사람까지도 미워질 때가 있어.

너를 탓하려는 편지가 아니었는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채우곤 했던 네가 새로운 만남이 부담스럽고 긴장된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언제나 금방 친해져 분위기를 띄우던 네가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게 힘들어졌다고 했을 때 울고 싶더라.

그래도 있잖아. 너무 뻘한 말처럼 들려서 와닿지 않겠지만 말이야. 다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어쩌면 지금으로도 괜찮을지 몰라. 꼭 전의 네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나는 그런 너도 좋아. 너는 전의 네 모습이 좋아서 지금의 너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눅이 들 때도 있다고 했지만, 누구나 변화가 있곤 하니까, 그리고 네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네 원래 모습이니깐,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너는 네 지금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지만 나는 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새롭고 귀엽고 너의 또 다른 모습을 안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해. 네가 괜찮을 줄로만 알았던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니 너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털어놔 줘. 너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얘기에 이유도 배경도 모르면서 내가 막무가내로 욕과 저주를 퍼부어대면 어이없다면서 한참을 깔깔거리던 네 모습이 보고 싶어.

너도 알겠지만 나는 항상 네 편이고 너를 응원해.

지금의 네 힘든 시기가 길지 않아졌으면 좋겠다.

곧 만나서 요구르트 먹으며 그네 타자.

안녕

일곱 번째 편지

안녕!

작년에 보낸 편지 이후로 처음이네. 그땐 이메일로 보냈는데, 지금도 사실 타자를 쳐서 글을 쓰는 거니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요즘 어떻게 지내? 난 요즘 이상하게 바빠. 너도 그래? 돈도 불안해서 그런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바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사는 걸 배워가는 걸까 싶지만, 가끔은 아니 요새는 자주 지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배우고 언제까지 당해야 할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아득바득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나를 먹여 살리는 일이 최근엔 자주 버거워. 그때 얘기했던 일들은 좀 해봤어? 요새도 밤에 잠을 설치니? 부디 지금은 잠이라도 잘 자고 있길 바라.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거지? 건강이 최고인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나이가 됐네.

이제 장마가 막 시작하려나 봐. 어제는 소나기가 내려서 바지 밑단이 조금 젖었어. 어제는 진짜 최악의 날이었는데 이 편지를 읽을 때에도 기억나려나? 아마 그때는 잊었길 바라.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에는 여름이 다 가고 다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일 것 같네!

나는 이제는 조금 쉬려고 해. 아마 오래 쉬지는 못하겠지. 누군가를 너무 쉽게 믿어서 큰일이야. 믿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꼭 그렇더라. 이렇게 믿지 못할 사람을 믿었다가 치어서는 믿어도 되는 사람들을 잘 못 믿는 거 말이야. 믿음에는 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같지? 최근에는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랑 비슷한 증상

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 알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든 넌 어때? 지금은? 최근엔 그렇게 사주를 보러 가고 싶더라고. 분명 거기에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이 있진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들으러 가는 거지. 희망이 있다고 들으면 그때까지는 참아보려고. 늘 견디는 삶의 반복인 거 같아.

모두가 그럴까? 궁금해. 다들 이 황당한 삶을 어떻게 견뎌내는 걸까. 살려고 발버둥 치기 위해 취미가 많은 사람을 보면 내 모습이 생각났어. 몇 사람들이 나에게 구슬을 꿰지는 않고, 구슬만 만든다고 하지만. 구슬을 엮을 힘이 아직 너무 부족해. 완벽한 때가 어디 있겠냐고 지금 이 그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각자의 때가 있다고 생각해. 평생 안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새로운 걸 그냥 배우고만 싶어. 준비되지 않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채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싶지 않아.

작은아씨들을 봤는데, 재밌더라. 모든 자매들이 이해가 됐어. 마지막에 돈을 위해 써 준 우스꽝스러운 로맨스 장면도, 작업을 당당히 거래하는 것도. 언젠가 내 작업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시간에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나와는 먼 얘기 같아. 영화 '소울'처럼 그냥 오늘 하루를 충분히 느끼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이게 더 이상적이라면 이상적인 거겠지. 최근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해봤어. 나는 먼 미래는 너무 아득해서 이런 일들이 더 우선시 되더라.

그 표 있잖아. 긴급함과 중요함을 교차해서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표. 오늘을 살면 내일이 없고, 내일을 살면 오늘이 없어서 나에게서는 즐거운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여겨져. 그런데 오늘과 내일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하루들이 교차하는 게 언제는 정말 참기 힘들어.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부디 건강하고 웃는 일들이 많은 하루가 되길. 어이없어서 웃는 거 말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걸 보면서. 쉴 때 쉬고, 안정적인 경제망을 만들고.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은 이렇게 많아. 이러니 행복하기 힘든 거겠지. 그래도 안녕한 삶이길.

또 편지할게. 건강해. 몸도 마음도.

여덟 번째 편지

너 자신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었으면 해.

너는 언제나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했고,

너무나도 힘내면서 살아왔어.

너 자신을 더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어.

네 건강과 체력을 더 챙기고,

너 자신을 그만 채찍질하고,

자신에게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 마음 한 켠에 자리 잡은 오랜 불안감을

이제 그만 놓아주었으면 해.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불안감을 원동력으로 삼아 달려왔겠지만,

이제는 좀 더 편안한 감정을 원료 삼아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아홉 번째 편지

안녕!

정식으로 쓰는 편지 중에 생일 축하 편지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항상 인사말로 ‘생일 축하해’를 썼었는데 그러지 않으려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 있지. 이 편지가 책으로 나올 때에는 거의 생일이 지척에 다가와 있을 테니 상투적이겠지만 인사말로 또 생일 축하한다고 해도 될까? 빠르든 늦었든, 올해도 생일 축하해!!

지금은 날이 슬슬 더워지고 있어서 선풍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쓸 일이 적어 거의 비워두었던 얼음 틀도 다시 얼리고 있고, 그마저도 부족해 하나 더 사서 함께 얼리고 있지. 자기 전 물병에 차원을 넣어두는 걸 자주 까먹어서 차를 우려 얼음에 금령해서 자주 먹고 있거든. 지금은 어떤 걸 자주 마시고 있지? 요즘은 향긋하게 올라오는 단맛이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 같아 루피시아의 차를 자주 먹고 있어. 하나에 꽃이면 그것만 마시는 거 알지? 아마 편지를 읽을 때쯤에는 사뵈던 차가 다 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 뭘 마시고 있을지 궁금해지네.

어... 더불어 수박이 슬슬 나오고 있어서 수박을 미리 먹기 좋게 잘라두고 야금야금 먹고 있는데 겨우내 기다렸던 맛이라 너무 행복해. 먹으면서 앞으로 나올 자두와 복숭아도 더 기대되는 거 있지! 복숭아가 나오면 작년에 미웠던 복숭아 얼그레이 마리네이드에 도전해보려고 해. 최근에 대추 방울토마토와 양파를 올리브유와 레몬즙, 꿀에 마리네이

드하는 거에 꽂혀서 떨어지지 않도록 2~3일에 한 번씩은 계속 만들고 있거든.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만들기 전에는 맛이 이상하거나 실패해서 다 버릴까 봐 아예 시도도 안 했었는데 막상 만들어보니까 맛도 좋고, 요리도 생겨서 만들수록 점점 내 취향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서 한 번에 만드는 양도 많아지고, 복숭아 얼그레이 마리네이드에도 욕심을 부리게 돼. 예전에 썬 드라이 토마토 만들기에 실패했을 때는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졌었는데 좀 더 쉬운 요리를 하며 자신감이 붙었는지 복숭아 얼그레이 마리네이드도 익숙해지면 썬 드라이 토마토도 다시 해보려고. 이걸 읽고 있을 때는 과연 성공했을지 궁금하다.

좋아하는 걸 얘기하니까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권태기(?)가 와서 꽂히는 노래도 없고, 아무거나 틀어두고 들리는 대로 듣고 있어. 새로운 노래를 찾아 듣고 싶긴 한데,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지 한 노래를 진득하게 못 듣거나 조금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노래로 넘겨버리기 일쑤거든. 결국 옛날에 즐겨들었던 노래나 주구장창 듣고 있지 뭐야. 이전에는 날씨가 내 기분에 맞는 노래가 떠올라서 날마다 그날의 노래와 함께 하루를 보냈는데 이젠 그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느낌이야. 이럴 때도 있겠거니 하며 얼렁뚱땅 아무 노래를 그 자리에 욱여넣으며 넘기고 있는데, 예전만큼 즐겁지는 않네. 만약 권태기를 지나 새로운 노래에 꽂히게 되는 날이 오면 기념일로 삼고 싶을 정도야. 그렇게 된다면, 이 편지를 읽고 난 후에 들을 수 있도록 책상 앞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두게! 편지를 다 읽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남은 하루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열 번째 편지

안녕! 네게 편지를 처음 쓰던 날에는 자꾸 감상에 젖곤 했어. 아마 너를 만나 알게 되고 하게 된 일들이 나를 자주 감동하게 만들곤 했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여전히 네가 내 앞에 열어 보여 준 세계를 돌이켜 볼 때마다 곰곰이 생각에 잠기고 자주 몽클해지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산뜻하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어. 너랑 내가 만나서 같이 웃고 떠든 날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어색하게 웃던 날들을 지나쳐 이제는 웃어도 되는지 아니면 웃음을 참아야 하는 지 오래 고민할 필요 없이 웃잖아, 우리. 가끔은 웃음이 너무 세게 터져 나와서 눈을 꼭 감아버린 채로 웃기도 하면서 말이야. 그때 우리가 일제히 웃으면서 흔들리던 공기가 마음속에 켜켜이 내려앉아서, 편지지에 적을 말을 떠올리려고 기억 속 책장을 펼치면 민들레 흩날처럼 날아올라 코끝을 간지럽히는 거야. 재채기처럼 웃으며 낱말들을 엮어 문장을 만들어가려니까 문장이 밝고 가벼워져. 그리고 있지, 내가 너를 알게 된 후 삶을 대하는 태도도 도 딱 그만큼 밝고 가벼워졌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진짜로 누구든 불편했을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너도 느꼈으리라 짐작해. 그래도 이제야 눈을 제대로 떴다는 감각, 이제야 남루한 세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곁에 그런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도. 너는 내가 만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래서 너를 처음 만나던 날 나는 어깨가 아주 뻣뻣해진 상태였어. 우리 모두가 이 참담함을 마주하고 있는 게 나쁜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어깨

를 나란히 마주하고 서는 경험은 인터넷에 나란히 적히는 글의 개수에 비하면 여전히 적었으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비슷한 사람이 곁에 없어 외롭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난 너는 만나기도 전부터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서, 나는 내가 그런 너를 실망하게 하거나 지치게 할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 약간 긴장했던 것 같아.

이제는 어쩌면 너도 그랬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흘렀어. 여전히 너는 내게 아주 많이 소중한 사람이라서, 나는 여전히 너를 실망하게 하기보다는 기쁘게 만들고 싶고, 너를 지치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차고 넘치게 많으니까 네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도 이제는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이렇고 저런 인상을 심어 주었을까 봐 마음을 졸이는 대신, 사소한 순간이 걱정되는 날에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나란히 걸으며 물을 수 있게 됐어. 너도 그런 질문을 하던 날이 있었지. 그게 벌써 몇 개의 계절 전 이야기라니, 믿어져?

너랑 내가 걷는 길 좌우로는 여전히 자주 세계가 부서져. 너무 많은 여자들이 사라지고, 믿었던 것들이 자꾸만 색종이처럼 얇아져 쉽게 구겨져 버려.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테고, 분명히 열린 문처럼 보였는데도 그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겠지. 그래도 우리, 자주 웃자. 분통을 터뜨리고 질편하게 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싸우면서 지금처럼 서로의 일상

에 자꾸 웃음소리를 불어넣자. 언제였더라. 날씨가 참 좋은 날이었는데. 장마도 한파도 없던 날에 네가 그랬잖아. 네가 들었잖아. 장엄하고 비장한 목표를 등에 메고 무겁게 걷지 말자고.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자주 웃으면서 나란히 걷자고. 부서진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로 발걸음을 내 디디면서도 내가 웃을 수 있었던 건 아주 많은 부분에서 네 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거기 조심해, 이쪽으로 와, 내가 그쪽으로 갈게, 하면서 네가 내딛는 발걸음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을게. 잠깐만, 같이 가, 하면서 나란히 걸을게. 언젠가 안녕이라고 번갈아 말하며 손을 흔들어야 하는 날도 오겠지만, 그전까지 나는 너랑 오래오래 걷고 싶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아마 사랑한다는 말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열한 번째 편지

너에게.

며칠 전에 너와 만났을 때 연말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3년 후, 5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지 얘기를 나눴는데 집에 왔더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 있지. 많은 말을 나눴던 것 같은데 네가 한 말만 기억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아무 말을 한 건지, 제대로 답변했는지는 모르겠더라. 사실 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 책이 나올 때쯤의 내가, 우리가 뭘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부디 내가 허황된 얘기만 한 건 아니었으면 해.

고백하자면 언제부터인지 미래의 나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머릿속에 있는 점들이 점점 크기를 늘려 모든 걸 덮어 버려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단편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차 같은 건 상상하기 쉬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걸 억으면 답이 나오기 때문이야. 다만 거기에 나는 존재하지 않아. 내 빈곤한 상상력으로는 한 달 뒤, 일주일 뒤의 내 모습도 그려지지 않거든.

아마 너와 얘기했을 때도 주위에서 나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저 전했을 것 같네. 미래에 뭘 할지 이미 확실한 계획이 있는 너의 말에 차마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뭐라도 말해야 했었어. 나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 미래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나에게에는 감흥이 없고 오늘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하지만 너는 미래를 상상하는데 제약이 없고, 나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

을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게 보여주지.

한 달 뒤 차곡차곡 계획되어 있는 일들부터, 장난스럽게 말하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일들까지 네가 보여주는 것들에 내가 위안을 얻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걸까? 발을 땅에 붙이는 데 급급해서 앞을 볼 생각을 못하는 나에게 네 말들은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줘.

알아. 구원은 셀프인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그래도 네가 괜찮다면 내가 스스로 힘을 얻고 앞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잠시나마 힘을 얻고 나아가려고 해. 이미 위안을 얻었으니 나머지는 내 몫이라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네게 너무 기대지 않도록 잠깐 너와 거리를 두고 이후에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때, 그때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나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여러 얘기를 나누고 싶어. 그때는 잊힐 얘기가 아니라 기억에 남을 얘기들을 나누며 오래 기억하고 싶어.

열두 번째 편지

너에게 쓰는 편지

잘 지내? 너에게 잘 지내냐고 묻는 날이 오다니. 매일같이 통화할 때는 너에게 긴 공백을 뒤로하는 안부 인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 사실, ‘잘 지내?’ 보다는 ‘괜찮아?’라고 묻고 싶어.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진 모르겠지만, 난 생각보다 괜찮아. 신기하다. 하기가 너와 멀어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 후의 내가 힘들어 할지, 덤덤할지, 어떤 모습일지도 떠올려본 적이 없네.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의외인 건지 그냥 괜찮은 건지도 잘 모르겠어. 너는 어때? 네가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와 거리를 둔 지금 우리의 추억들을 되짚어 보니, 그때 어떻게 안 멀어지고 같이 지낼 수 있었는지? 싶은 기억들도 많아. 막상 그때는 대수롭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번이 가장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 하지만 이미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못한 거고. 솔직히 없었던 일로, 아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락을 하면 너 역시 아무렇지 않게 받아줄 걸 알아. 마찬가지로 네가 그렇게 연락을 해 오면 나도 시침 똑 떼고 다시 재잘거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 균열은 없어지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아. 모르는 척 덮어 뒤편도 미뤄둔 숙제처럼 마음 한 켠을 차지하고 있겠지.

아니면 그렇게 멀찌감치 미뤄뒀도 괜찮은 건데 내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너무 많이 생각해서 머리가 아플 때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심각할 일인가? 연을 끊을 정도로? 고작 이런 일로 친구를 잃어야 하나?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나? 그런데..... 정말 이게 ‘고작’일까? 나는 이런 걸 ‘고작’이라 생각하고 넘길 수 있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암묵적인 동의 하에 침묵한 채 넘어가려나? 그게 최선일까...를 생각하면 다시 그날의 대화로 돌아가게 돼. 그리고 끝없는 질문 속에 갇혀서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만 같아.

분명한 건, 너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아닌데 왜 우리가 멀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가 전혀 다름에도 설마 이 이유로 멀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그래서 그냥 당황스럽고 황당하더라. 애길 한 게 고작 얼마 전이었는데. 근데 사실 뭐랄까... 아이러니하게도 속 시원한 기분을 느꼈다고 하면 이상하지? 너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너와 이 이야기를 미리, 평온한 상태에서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다행이다 싶고 감사해. 만약 이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면 감정에 매몰되어 진솔한 대화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대화에서 우리 둘 다 해결책을 찾지 못했잖아. 그저 서로가 좋아서 계속 함께하고 싶다-라는 바람이었을 뿐. 그때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었다는 게 묘하게 위안이 된다고 하면 나 미워할 거야? 어이없어하는 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그런데 솔직히 네가 어떤 반응일

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너를 잘 모르겠다는 게 너무 낯설어. 난 항상 너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도 정확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켜보니 그건 오만이었어.

그래서 무서워. 너의 반응이 어떨지 알 수 없어서 무섭고, 너를 모르는 이 상황이 낯설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답답해. 너와 이 주제로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지, 그저 너와 즐거웠던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모르는 척 덮고 싶은 건지 정말로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이 편지가 너에게 닿기를 바라면서도 네가 몰랐으면 싶어. 너와 멀어질 것을 염두에 두어 본 적도 없어서 슬픔보다 혼란이 커. 이럴 줄 알았으면 상상이라도 해 볼걸.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생각만 요동치네.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힘들고 화나는 일도 있었어. 너에게 전화해서 미주알고주알 다 털어놓고 싶은데. 그런데 그보다는 사실, 지금 너에게도 힘든 시기인데 내가 너의 고민을 나눠주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 그래서 네 상황이 좀 괜찮아졌을 때, 내가 너에게 많이 의지가 된 후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해. 이상하게 나는 항상 네가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그래. 내 앞가림도 못 하면서ㅋㅋ

힘들거나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아니면 그냥이어도 좋고. 나도

어찌고 싶은 건지 찾게 되면 연락할게. 어찌면, 함께 지내고 같은 이유로 멀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완전히 관계가 끝이 나든 해결책을 찾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전에도 지금도 너는 내 베스트프렌드야. 나중에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베스트프렌드일 거야.

열세 번째 편지

지금은 멀어진 너에게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살아왔어. 나는 참 부족하고, 관용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라면 모르는 척 대강 넘어갔지만(그리고 빠르게 도망쳤지),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게 있으면 꼭 지적하고 싸우고, 결국 멀어지는 일들의 연속이었어. 하지만, 고집스럽게 보이겠지만 그다지 크게 후회하지는 않았어. 십년지기 남자 사람 친구와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한순간에 갈라선 것도, 어떤 사건에 대해 불같이 화내다가 오랜 친구 무리에서 배제된 것도 크게 미련이 남지 않더라고. 다시 돌아가도 난 똑같이 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갈라선 사람들 중 단 한 명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더 생각하지도 않고 너와의 관계를 되돌리려고 할 거야.

너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으니까, 이 책도 유명해져서 너한테 닿을 일이 생길까? 만약 닿는다면 너는 네 이야기임을 알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지는 못해. 그래서 결국, 이 편지는 내가 그냥 어딘가에 띄워 보내는 종이배 같은 거야. 난 오글거리는 것을 참 싫어하고, 애뜻한 감성 글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용기 내봤다. 그리고 (...) 네가 걱정할까 봐 말하자면 너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건 절대 아냐(!). 연애편지 아니다. 그냥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 깨닫게 돼. 드라마 같은 것을 보더라도 거기서 이성애 로맨스보다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여자인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참 귀하게 느껴지고 눈에 더 들어와.

네가 가끔 SNS로 전 남자친구에게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잖아(난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했고). 근데 그놈(네가 훨씬 아까워, 나 아직도 개 얘기 들을 때마다 망하라고 저주한다)보다도 너를 열심히 찾

아본 건 항상 나아. 네 SNS 계정 찾아서(또 나 그런 거 열심히 하는 거 알지?) 친구 등록은 못 하고, 자동완성될 정도로 찾아보고. ‘있을 때 잘 해’ 말고 다른 이별 노래는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더라고. 내가 너에게 잘못된 게 많아서겠지. 네가 새롭게 찾은 적성에 따라 계속해서 길을 잘 개척해나갔을지,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난 참 궁금했어.

너는 내가 가진 능력이 별로 없다고 했지만, 너는 이 사회에서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쉽게 갖지 못한 큰 장점들을 가졌어.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능력이야. 나에겐 한참 부족하고 너에게 많이 배웠어야 했던 능력이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들을 줄 알았기에 너의 길을 새롭게 찾아갈 수 있었던 거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었던 거 같아. 네가 너의 (아마도) 꿈을 찾아 직장을 구하고, 일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공개된 범위에서만. 범죄 절대 아님) 참 잘됐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자신을 믿고 성장하는 너의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

어느 날 N번방 이슈에 대해 연대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는 그에 대해 너랑 얘기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네 남자인 지인들보다(개들 난 여전히 시시껄렁하다고 본다…썩익) 내가 너를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하는데, 왜 그들이 아니라 내가 멀어져야 했었나, 가끔은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해. 물론 당연히, 내 잘못이 커. 마지막까지 너에게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과하고 싶었어. 돌고 돌아 너와 가까워졌는데, 그렇게 보내다니 내가 바보였어. 원래 연인들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이러기도 하잖아.

그냥, 살다가 혹시라도 내가 뭔가 널 위해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능청스럽게 연락해줘. 잘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후회의 시기를 겪은 내가 업그레이드된 우정으로 맞아줄

게. 어디서 뭘 하든, 남자 놈들 너무 믿지 말고. 그보다 너 자신을 더 믿어줘. 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꼭 나를 만나진 않아도 좋으니, 어디서든 잘 지내라(쿨한 척).

열네 번째 편지

잘 지내고 있을까? 네게 항상 묻던 문장으로 편지를 열었어. 이렇게 말하면 너는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장으로 나를 반겨주곤 했어. 안부를 묻기에 앞서 나의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네가 불편하거나 당혹스러워 하지는 않을지를 염려하는 날이면, 너는 다양한 말들로 나를 안도하게 하곤 했어. 그래서일까. 신발창 아래가 온통 구름인 것 같거나, 머리 위 지붕이 여전히 튼튼한데도 머리 위에서부터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기분이 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도 명명할 수 없는 날에는 항상 네 이름이 떠오르곤 해. 메신저에 등록된 이름들 속을 빠르게 스쳐지나 네 이름에 도착하는 날은 네 이름을 떠올리는 날들보다 적은 적지만, 그래도 네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끔은 작은 공기 방울들이 생기는 기분이야. 너는 내가 어항 같은 세상 속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마다 숨 쉴 곳이 되어주곤 해. 네게서 오는 연락이나 소식은 내 몸 전체를 감싸고도 남을 정도로 커다란 공기 방울이 되고.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숨을 고르다가, 다시 씩씩하게 세상 속으로 헤엄쳐 갈 수 있어.

우리가 연락이 닿지 않던 시기도 있었지. 그건 어떻게 보면 나의 책임이라서, 나는 너랑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날들에 네가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면 주변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어. 그건 어쩌면 네가 겪었을 막막함이나 답답함에 관한 짐작일 거야.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던 시간을 미안하다는 말로 돌이킬 수는 없어서, 그래서 나는 너랑 나누는 이야기의 끝을 언제나 연락해도 좋다는 당부로 맺곤 해. 최근에 우정에 관한 그림책을 하나 샀어. 거기에도 비슷한 문장이 나와. 새벽 네 시에

나한테 전화해도 여전히 괜찮은 거, 알고 있니? 하고 말이야.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만나고 알게 된 여자들을 생각했어. 그 중에는, 설령 전화를 받지 못하는 때도 있겠지만 이름을 부르고 싶을 만큼 그리워지거나 간절해질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다고 말해주던 언니도 있었고, 같은 국가에 살면서도 지구 반대편의 시계로 살고 있어 새벽에 전화하면 대낮처럼 받아 줄 친구도 있었어. 정말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 새벽 네 시에 전화하면 한낮의 햇살 속에서 내 새벽을 염려해 줄 테지만, 오래 알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얼굴을 마주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친구 생각도 났고… 그리고 네 생각이 났어. 언제든지 소식을 전해 달라는 간결한 말에는 그림책 속 문장과 같은 서정이 결여되어 있지만, 여기에 남몰래 고백해두자면 내가 보낸 ‘언제든’도 새벽 네 시를 포함하고 있었어.

안부를 정기적으로 묻거나 구조 신호를 쏘아 올리는 건 주로 나지만, 그래도 보냈던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시금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언제나 유효할 거야. 너는 이 약속이 너무 까마득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 막연한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그렇게 약속할 수 있어. 약속에 관한 약속이니 새끼손가락을 두 번 걸어야 한다면 오른손과 왼손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네가 기쁘고 슬프고 혼란스럽고 괴로울 때 언제든지 네가 원한다면 내게 알려 줘. 내가 알 수 있게 해줘. 내게 들려주는 말을 내가 단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날은 아주 드물겠지만, 감정을 충분히 알아내기 위해 노력할 네 곁에서 나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시 씩씩한 나날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가 내 일상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던 때처럼 말이야. 들숨에 함께 실려 온 낮익은 풀 냄새나 하늘에 뜬 달이 밝았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날에도 좋아. 그러면 나는 네가 들려준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네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온 게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오래오래 이야기할게.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응원하고 애뜻해 하면서.

열다섯 번째 편지

안녕.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람.

우리 참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다,

그치.

이렇게 존대 없이 말해보는 건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야.

한 번은 네가 친구처럼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었지.

나도 너를 내심 친구로 생각했지만, 아직 머리로는 그렇지가 않나 봐.

어릴 때 생겼던 선망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모양이지.

나는 여전히 네가 남 같아.

완전히 타인이 될 순 없지만

우린 정말 너무 다르다 보니 이해점이 부족하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서로 남일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숨기고 있는 게 많은 것처럼

너도 그렇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이야.

한때 우리는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니 신기하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의문이 드니 네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말하고 싶었어.

어떤 이들은 그 선한 면을 이용하려 하는 데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인연을 중요시해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사람.

문제가 생겨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책임감 강한 사람.

정말 맛있는 부분이라 생각해.

나는 용기 있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내 주변에 그런 네가 있는 줄 참 오래 모르고 있었어.

나는 언젠가 너를 떠나 오롯이 살아가게 될 거야.

다만 이것이 네게 공허함을 주지 않았으면 해.

누구나 홀로 일어서기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그게 좀 더 늦게 찾아오는 것뿐이니 되려 응원해 주길 바라.

나도 네가 가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더 나아가고 싶어.

언제나처럼 나를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서로의 나아감을 응원하고 더욱 기대했으면 좋겠네.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너에게

내가

열여섯 번째 편지

안녕.

잘 지내니.

예전엔 ‘잘 지내?’라는 말이 너무 싫었어. 잘 지내냐는 인사치레인 말에서 잘 지내지 않는다는 걸 말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하기도 싫었어. 어제 네 동생과 카톡을 주고받았어. 약속을 한번 미루자마자 코로나가 오고, 또 우리 사이가 어떤 일로 서먹해지기도 했으니까. 너를 만나러 간 곳에서 동생을 만났어. 동생은 나를 보자마자 내 이름을 부르더라. 언니에게 많이 얘기를 들었다면서. 나는 또 괜히 부끄러워졌어. 서먹한 채로 너를 떠나보낸 것 같아서 허전했어. 원래는 너에게 잠시 인사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동생이 점심을 같이 먹고 있었어. 너 대신 너의 동생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

처음 너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장난 같았어. 그냥 여러 카드와 은행 회사 메시지들 틈바구니에서 신규알림이 표시된 문자는 황당한 소식을 전하더라. 한 저녁 8시쯤 이었나. 일을 하던 중이라 일단은 일을 마무리하려고 핸드폰을 덮어 두었어. 네 동생과 밥을 먹는 2층은 해가 잘 드는 곳이라 분위기가 가라앉진 않았어. 동생과 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 나도 너로부터 동생 얘기를 많이 들었던 만큼, 동생도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 동생 친구도 만났어. 겪어보니까 누군가를 보낸다는 게 참 황당한 일더라.

그날 일을 마치고, 버스로 가야 하나 기차를 가야 하나 고민하며 차편을 알아봤어. 우리는 한 나라의 끝과 끝에 살고 있잖아. 그러고 나서 옷

을 뭇 입어야 하나 고민했어. 옷장에서 검은 상하의를 찾아내고선 옷을 깔끔하게 다려두었어. 어지러운 마음 사이로 지금 당장 해야할 일들이 끼어들었어.

환승버스터미널에서 아침을 먹는데, 너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더라. 여기서 우리는 처음 만난 날 같이 장을 보면서 함께 지내게 된 며칠의 식사에 대해 고민하며 저녁을 먹었는데. 생각해보니 네가 서울에 놀러 왔을 때가 벌써 3년 전이 돼버렸더라고. 너는 나를 만나러 이렇게 먼 길을 왔구나. 오늘 하루를 급하게 비우는 바람에 미뤄둔 일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친구의 장례식장 앞에서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예절을 따라야하는지 혼란스러운 채로 발걸음만 서둘렀어. 날은 너무 화창하고. 너 없는 곳에 너를 만나러 가는 게 이상했어.

입구에서 서성이는데 동생이 나를 알아보더라. 처음 보는 너의 가족들 앞에서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정신이 없었어. 근데 진정이 되고 동생과 마주 앉아 얘길 나누다보니 동생이 참 너를 많이 닮았더라, 동생이 너를 닮은 건가. 같은 배에서 나왔으니 닮은 건 당연하겠지만.

동생과는 종종 웃기도 하고, 농담도 건넸어. 우리가 나누던 농담이랑 비슷해서 또 기분이 이상했어. 밥을 먹고 동생이 네가 재배한 과일을 가져다주더라고. 나는 정말 평생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 동생 친구랑 내 뒤편으로 나온 과일 내가 거의 다 먹은 듯? ㅎㅎ 네가 어떤 마음으로 딸기를 키웠을지 아니까 더 신기하더라.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몇 달 전 고민하던 네 모습이 떠올라. 너는 한 해 사이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 냈구나. 우리 말다툼 이후에 나는 종종 너를 떠올리고, 우리가 나누던 시시콜콜한 농담들도 그리웠는데. 어제는 엄마가 고춧가루가 필요하다고 너희 집 고춧가루를 찾으시는 거야. 민망하지만 동생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동생 카톡 아이디를 찾았어.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더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를 이렇게 기억하려 하는구나.

최근에 ‘오늘일기 챌린지’를 하다가 우연히 네가 남긴 블로그 안부 글을 보게되었어. 내 이미지랑 다른 블로그에 네가 “조또 당황스럽다”고 쓴 걸 보았어. 살면서 친구가 몇 없는데 이렇게 과거에 남긴 메시지로 네가 날 웃기네. 에휴. 이제는 내가 네 소식에 조또 당황스럽다. 희한하게도 죽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그런지 갑자기 살 때까지 살아보고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생각이 더 들기도 하고. 나는 종교가 없어 만나기 힘들까? 그래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래.

그나저나 어제 고춧가루를 사려고 동생에게 문자를 하는데, 나는 괜히 안부를 물을 수가 없는거야. 그래서 예의없게 그냥 안부를 생략하고 고춧가루 살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동생이 먼저 잘 지내지~~라고 답장을 보내왔어. 끝에 남긴 물결에서 동생 목소리가 음성 지원되었다. 네 글들도 음성지원이 됐었는데. 그제야 나는 동생에게 잘 지내냐

고 물어볼 수 있었어. 네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생은 아주 씩씩하고 멋진 사람이더라.

잘 지내지~~

우리는 잠깐 안녕이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너무 늦게 얘기한걸까

요새 너와 처음 걸었던 길을 걸어 일을 다니기 시작해서 그런지

네 생각이 자주 난다.

다시 만나자!

곧 또 만나!

열일곱 번째 편지

2021년 10월의 너 어떻게 지내니,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니? 여전히 서평단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와는 끊어질 듯 말듯 연락을 이어가고 있니? 10월이라는 달이 너에게 특별히 큰 의미가 있던 적은 없지만, 또 매년 다르게 다가왔던 매일 중 한 순간이었지.

20대 초반의 10월은 10cm의 '10월의 날씨'로 정의되는 듯해. 그 노래를 들으면 아쉬운 인연과, 함께 떠오르는 노래 '아프리카 청춘이다'로 이어지는 사막의 추억과, 우울했던 그때의 마음과 또 동시에 대학생의 활기가 떠오르네. 당시에는 몰랐지만 얼마나 희망과 생기로 가득 찬 때였는지. 지금의 너를 보는 30대, 40대, 50대... 언니들이 같은 감정일까? 아니 네가 몇 년 후 지금을 돌아보면 같은 감정일까? 막상 너는 지금 이 시기를 한마디로 '푸석푸석하다'고 생각할 만큼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지. 추억은 미화되는 게 맞나봐. 그래도 지금 힘든 건 정말이야 ㅠㅠ

너의 20대 후반, 2021년 10월이 20대 초반에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만큼 용기 있다고 응원해 주고 싶어. 너 힘든 일이 있고 나서 새로운 다짐을 해내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니. 너 말이야 죽기 직전부터 용기를 내고 실행하기까지 6개월밖에 안 걸렸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원래 사람이 자기연민도 좀 있어야 인생이 살 만 한거다 너....)

상당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안정된 길을 추구하던 네가 인생에 있

어 가장 혼란스러운 올해를 어찌어찌 시행착오도 해보고 곧세게 도전했다가 금세 늘어지기도 하며 인생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게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 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취미가 없어도, 운동은 뭘 해도 초급에서 그쳐도 넌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 아주 칭찬해!

30대의 10월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정적인 너의 본질상 아마 뭔가에 짜증이 나 있겠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2021년 10월의 너를 기특하다고 기억할 것 같네. 생기로 반짝거리기보다는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시기지만 또 그저 인생이라는 것에 충실했던 시기로.

이 편지를 다시 읽을 때쯤의 너는 여전히 아마도 같은 이유로 힘들어하겠지만 응원할게. 너는 너라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혼자라는 기분이 들 때 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구석에 처박혀있는 편지들도!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긴 글로 너에게 애정을 표현했단다).

그럼 예전처럼 지금처럼 앞으로의 미래처럼 잘 지내! 안녕!!

열여덟 번째 편지

Hi! It's me!

We have talked on the phone every weekday morning so far. But for a while, We couldn't talk as we did. I am writing this lunchtime.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 started to talk. Perhaps It began 2 years ago? I don't remember the exact time but one clear thing is we talked about a lot of topics, Here and there. Very often weird topics are out of nowhere. It was so fun and special moments. I frequently hesitate to talk about specific subjects or issues. I don't like to be judged or I was afraid to lose precious relationships. But I said almost everything to you. Lol well, looking back, it might have made you awkward from time to time. Our talk has covered from very private things to political issues. The last topic was also very random. It is magical to meet someone who has a similar perspective of life even living in other country. Is the reason we get along because we are similar MBTI? We're INFX. Lol, I'll miss your laughing and positive energy to wake me up every weekday. You taught me to see the bright side when I was in trouble and felt bad. getting in trouble and sudden sadness happen too often in my life as you know. but you didn't give up to cheer me up lol. I know this is not our last goodbye. Just a little pause. We

can connect through social media. then Keep in touch!
:) I'll text you! Last Monday, you told me about my positive effect on your life, I was so touched. I thought I was quite a gloomy person. Well, that is one of my personality for sure. So I was more glad to hear that! I have also been affected a lot by you. While I was talking with you, it reminds me of the very first reason why I started to study English. we can share opinions with people who have different background and it broaden our horizons. See! Now I can cook sardine pasta following your recipe and It become one of my favorite foods! Writing the word 'sardine' makes me hungry again :) my saliva! I learned not only English but also the new perspective and the happy energy from you! I think I'll need our talk very soon. haha. I'll wait for you to come back in the morning shift or I could change it to the evening time someday. I hope you are doing great! good luck with your business and your family! I'll pray for you always!

Take care always!

See you!

당신에게 쓰는 편지



안녕하세요.

아주 사적인 편지들은 잘 읽으셨나요? 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책은 힘들 때 마다 꺼내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기도 해서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하루를 보내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통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타인인 줄 알았던 이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읽히는 순간은 아주 잠시 외롭지 않은 순간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읽히듯이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아 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살아가는 동안은 매일 매일 아주 잠깐이라도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편지를 쓸 때의 나와 답장을 받을 때의 나는 조금 달라져 있기 마련이지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나와 읽고 있는 당신은 여기에 같이 있네요. 여기서 책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붙들어 둘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시간을 담을 수도. 또 누군가의 시간을 붙잡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이 만질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담은 시간은 당신의 가방 속에 책장 속에 또는 주머니 속에 잠시 머무를 수도 있겠죠.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위해 내어준 시간도요. 언젠가 당신이 힘든 순간에 이 책을 다시 꺼내볼 수 있길 바라요. 며칠 전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이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금을 바라보게 된다는 글을 읽었어요. 요즘 저도 행복한 날을 만나면 이 순간이 가는 게 아쉬워서 조금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날이 다시 나에게 올까 하고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오늘 어디에선가 미래 언젠가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표면이 맨질맨질 때까지 꺼내볼 만한 추억할 만한 일이 많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웃을 일이 많은 날이 되길 바라요. 다시 한번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매일 하는 인사말을 편지에 쓰려니 어딘지 오그라든다고 느꼈는데 열 통이 넘는 편지들을 읽고 나니 안녕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졌어. 네가 이 편지들을 읽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어. 너는 내가 편지를 쓴 누군가일 수도 있겠고, 오랜만에 떠올리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고, 사이가 멀어진 누군가일 수도 있겠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것, 그리고 편한 사이에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인사하는 말이 안녕이란다. 열 통이 넘는 편지에서 열 번이 넘어가는 안녕을 전한 이맘때쯤이면 우리도 편한 사이일까?

모든 편지가 네게 하고 싶었던 말 같기도 하고 네가 내게 해줬으면 하는 말 같기도 했는데 너는 어땠을지 모르겠다. 역명의 힘을 빌려 숨겼던 이야기를 전했다. 너에게 하는 말을 단박에 알아채 줬으면 하면서도 몰랐으면 싶기도 했지만 편지를 다 써내려갈 즈음엔 아무래도 좋았어. 내가 편지를 마무리할 때쯤 후련했던 것처럼 너도 그 시절에서 나와 평온해졌기를 바라. 혹은 내가 편지를 써 내려갈 때 너와의 기억에 행복했던 것처럼 너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길 바라.

내가 쓴 편지가, 그리고 다른 이들이 나와 같은 심정으로 썼을 편지가 모두 소중해서 한 편 한 편이 쉬이 넘어가질 않았는데, 너는 어땠니? 이 편지들을 다 읽고 덮을 때쯤이면 너도 나와 같은 기분일까. 그리고 언젠가, 어디선가 마주치면 서로 안녕-이라고 인사할 수 있다면 좋겠다. 네가 못 알아봐도 나는 알아볼게.

아프지도 힘들지도 말고 아무 탈 없이 편안하길 바라.

안녕.



편지는 잘 보셨을까요. 『아주 사적인 편지』는 리좀팀의 두 번째 책 이에요. 작년에도 이맘때쯤 첫 번째 책 『성남』을 발간했었는데 올해도 팀원들 덕분에 책을 낼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쓸지 많은 고민을 하다 편지를 썼는데, 직접 부치지 않았더라도 편지가 무사히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혹시 편지를 쓸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 있나요? 저는 평소 편지를 쓸 때, 특히 생일 편지를 쓸 때는 읽을 사람과의 추억에 잠기다가도 곧잘 다른 얘기가 떠올라서 처음 생각과 다르게 이것저것 적어 보내요. 이번에 써 낸 편지는 생일 편지가 아니지만 읽을 사람을 떠올리다 보니 또 이런저런 말들이 생각나서 길 어지더라고요. 제 친구는 편지마다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걸 적어 보내줘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취향을 알아 가고 있어요. 이 편지를 읽을 당신의 편지 습관도 궁금해지네요. 짧은 편지여도 좋으니 편지를 써 보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읽었던 편지에 답장해도 좋고 아니면 읽다가 생각난 사람에게 편지를 써도 좋겠어요. 쓰고 나면 어떤 편지가 될지 기대되는데 볼 수 없는 게 아쉽네요(아니면 슬쩍 저희에게 답장을 보내셔도 좋구요!). 다음에 저희가 또 책을 내게 된다면 다른 주제가 되겠지만 그때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 있을게요. 무탈히 잘 지내고 계세요.

우정을 담아

이경



이 페이지 귀퉁이에 너의 손가락이 닿기를 기다렸어. 이렇게 말하면 조금 놀란 얼굴이 되었을까? 어쩌면 직사각형 종이 모서리나 손가락을 향해 고개가 잠깐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 즐거운 깜짝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네게 전할 수 있을 문장들을 고민하고 있어. 메모장에 적은 문장 뒤에 붙어 깜빡이는 커서를 보면서 말이야. 이 페이지를 열기까지 너는 어떤 시간을, 어떤 날들을 보냈을지 궁금해. 어쩌면 여러 편의 편지가 엮인 이 책을 집어 들자마자 단숨에 여기에 닿았을 것 같기도 하고, 책장에 꽂아둔 채 며칠의 시간을 보내다가 불현듯 여기에 당도했을 것 같기도 해. 할 일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와 네 공간에서 비로소 숨을 돌리고 있는 날이거나 아니면 일과 사이에 모처럼 빈틈이 생긴 날이 아닐까 싶어. 네 손에 처음 닿았을 겨울 초입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몇 개의 계절을 더 지나 한여름일 수도 있을 거야.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네가 보냈을 시간을, 아직은 오지 않은 시간을 헤아리며 적어. 이럴 때면 무심코 그리곤 하는 시간의 선형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돼. 과거에서 미래의 너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아직도 현관문 문턱을 지날 때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세계일까? 우리가 아주 많은 시간을 사이에 두고 만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럴 것 같아서 조금은 속상해. 표정을 반쪽으로 읽어야 하는 날과 마스크 위로나마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웃는 날을 나중으로 기약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힘든 시간이 참 길었지. 어딘가에서 듣기로는 외향적인 사람이 고립된 나날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내향적인 사람이 무대에서 장기자랑을 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와 유사하대. 양극단을 놓고 보면 나는 내향적인 사람에 가까운 편이라서 사람을 만난 후로는 조브 볼(zorb ball) 안에 들어가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원해서 들어가는 것과 원하지 않아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 아주 다

르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나는 네가 보냈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해. 어떤 날에는 내향적이고 어느 날에는 외향적일 네가 혼자 보
냈을 시간들을. 일 인분의 시간이 늘어나는 동안 겪어야 하는 어려움
이나 부당함이 같은 크기로 떨어지고 부서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날들이어서 마음이 쓰여.

그래도 너는 하루하루를 꼬박꼬박 보내고 오늘로 왔어. 나는 그게 기
뻐. 그걸 요란하게 축하하고 싶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향적인 사
람이지만, 편지를 써서 부치고 있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서 마이크를 쥐고 축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무릎이 깨질 정도로 무너지는 날도, 무릎이 깨지고 돌아오
던 어린 시절처럼 평평 울고 싶어지던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가 그
런 날들을 지나쳐서 오늘까지 와 주었으니까. 과거에서 너를 기다리
면서 내가 적어 부치고 싶은 말들도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관한 응
원일 거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네. 꼭 쉬고 잘 자. 그리고 우리 일어나서 또 보자. 그런
말들 말아야. 나는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과정 없이도 네가 성
장하고 견고해지고 정교해질 수 있다고 낙관해. 세상이 필요 이상으
로 망치를 휘두르곤 한다는 비관적인 생각과 함께. 깨진 네 무릎 앞
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숨결을 불어 넣어 줄 수는 없겠지만, 후
후 불어가며 깎은 연필로 적어 내려가듯이 고심해서 엮은 문장들이
네 마음에 뽀로로 밴드처럼 안착할 수 있기를 바라.

나의 오늘에서부터 너의 오늘을 오래 기다려 왔어. 네가 여기까지 보
낸 모든 날을 축하하고 응원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날들 역시도.
지치는 날이면 언젠가 다시금 꺼내 읽어 줄래? 같은 문장들과 함께
너를 기다리고 있다가 잔뜩 반길게. 오늘처럼 말아야.

아주 사적인 편지

비정기 간행물 2호

발행 2021. 10. 31

인쇄 코우너스

기획 리즘(샤굴, 샤씨, 이경, 칠월)

디자인 샤씨

편집 칠월

교정/교열 샤굴

리즘은 팟캐스트와 비정기독립출판물을 제작합니다.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쫘쫘따리 리즘' 또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rhyzome2030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책의 소장 및 기고문의는 rhyzome2030@gmail.com로 알려주세요.

본 독립출판물은 성남 프로젝트 청년이 해봄[도전해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값 8,000원

